

#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0.05.126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 02 시론

우리 늙으면 어떤 집에서 살까?

## 03 종합

사랑에서 \_ 정보의 개방성과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방향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제33회 정기총회' 서면총회 의결  
광주건축사회, 2020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광주건축사회, 서구청 불공정 입찰공고 사항 개선시켜

##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위임총회로 개최  
전라남도, '내 땅 공유지분' 찾기 홍보 나서  
순천시, 도시재생 로컬크리에이터 '공공 워크숍' 개최

##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서면총회로 개최  
전북건축사회, 전북도청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성금' 기탁  
완주지역건축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성금' 기탁

## 10 설계경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건축설계 제안공모

## 11 종합뉴스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 시작  
올해 첫 '건축사자격시험', 오는 6월 20일 실시한다  
광주전남건축가회, '제3회 광주건축대전' 공모 진행

##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천천히 재생  
한 편의 시 \_ 오월의 눈 물  
세상사는 느낌 \_ 나가꾸기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 우리 늙으면 어떤 집에서 살까?



이동희 논설위원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tdonghee@hanmail.net

- 1982-1985 영월공업고등학교 건축과
- 1986-1994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1994-1999 오이타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2000-2002 충주대·세명대·대원과학대 강사
- 2002-2005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2005-2020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10-2011 펜실베이니아대학 방문교수
- 2015-2016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2018-2019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2019 한국농촌건축대전 운영위원장
-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집행부위원장
- 2019-2021 고흥군 청년농촌주택조성사업 총괄계획가

전원주택을 지었다면서 보러오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대부분 도시 외곽의 산기슭이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나름대로 주택을 건립해서 노후를 즐기고 있는 경우이다. 그들은 마당에서부터 실내공간 구석구석까지 손님을 안내하며 희열에 찬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를 한잔하면서 기대에 찬 얼굴로 “집이 어떻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럴 때면 나는 그저 두말없이 “아주 멋집니다.” 하며 ‘엄지 척’을 해준다. 이미 완성된 집에 대하여 칭찬 외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왠지 개운하지가 않다. 바로 집주인의 고령기로 접어든 나이와 그 집의 장래 쓰임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적잖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에 어느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집이나 한 채 짓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살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거주할 지역까지는 잘 고르는데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지금부터 살아갈 노년에 적합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꿈꿔왔던 멋진 집을 지으려고만 하는 탓이다. 현재는 ‘언덕 위의 하얀 집’을 꿈꾸던 이삼십대 청년이 아닌데도, 여전히 잔디밭에 징검다리 돌을 놓고, 매우 높은 기단을 축조하며, 좁은 계단 위의 다락방을 선호하는 식이다. 물론 자기만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집을 주체적으로 지은 의지와 실행력에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심신이 쇠약해지고 질병에 시달리기 쉬운 노년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노년학에서는 보통 55세~64세를 예비고령자, 65세~74세를 전기고령자, 75세~84세를 중기고령자, 85세 이상을 후기고령자라고 한다. 예전에는 노화현상이 심해지고 질병발생이 많아지는 75세 이상을 한꺼번에 후기고령자로 부르기도 했다. 노인건축 전문가들은 “예비고령자가 되면 자신이 살 집을 미리 지어서 익숙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고 조언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각종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이미 마련한 주거에 잘 적응되어 있으면 별다른 불편 없이 자가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집은 ‘3안(三安)’을 고려해 지어야 한다. 첫째는 ‘안전(安全)’으로 구조나 설비가 위험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둘째는 ‘안심(安心)’으로 재해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안정(安定)’으로 철거나 내몰림 등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의사들은 노년기에 가장 조심할 것으로 ‘감기’와 ‘낙상’을 꼽고 있다. 감기는 특효약이 없을뿐더러 자칫 폐렴으로 이어져 면역력이 약한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외피 단열과 창호의 밀폐 시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낙상을 당하면 뼈가 잘 굳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겨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생활동선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넘어짐, 걸림, 미끄러짐, 떨어짐, 부딪힘, 베임, 찔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공간을 계획하고, 가구배치나 설비 부착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한편, 후기고령자가 되어 팔다리, 이목구비, 내장기능 등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을 때의 상황도 고려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통로의 단차나 문의 유효폭 그리고 화장실 사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안이나 백내장 등 눈의 질병이 심해져 공간 및 사물이 잘 구별되지 않으면, 집 구석구석을 이동하며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런 까닭으로 자가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다른 거주처나 요양병원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노년기의 ‘생활거점이동’은 새로운 주거공간 및 동거인 등에 대한 ‘적응’ 및 ‘갈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며, 각종 질환과 인지장애(치매)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노년기 주택은 가능한 한 오래도록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면밀하게 계획해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17년에 고령화율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2026년에는 고령화율 20%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세대 고령자’로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새로운 생활문화를 보여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현재 주거유형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원주택이나 그와 유사한 주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년주택을 계획할 때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신체기능의 단계적 쇠락 및 질병발생 대응’ 문제이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우리 인체는 나이를 먹으면서 차츰 그 기능이 쇠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맞춰 공간이나 설비 등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을 가변형 및 맞춤형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건축학에서는 “고령자는 곧 장애인”이란 인식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노년주택도 장애인주택에 준해서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건립하는 주택은 현재의 신체 상황만 고려하지 말고, 극도로 병증이 악화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까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 거주환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건축인들도 ‘우리 늙으면 어떤 집에서 살까?’란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자신과 건축주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축적과 기술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년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철저하게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보다 가볍고 강력하게

MIDAS ARCHIDESIGN STANDARD 정식출시!

DWG 전 버전 호환 + 연속출력 + DWG 도면분리 + 리습 + 무제한 업데이트

MIDAS 구매문의 1899 - 9260 www.midasCAD.com

MIDAS ARCHIDESIGN STANDARD 출시기념

5월 프로모션

40만원 → 35만원 1년 라이선스

120만원 → 100만원 3년 라이선스

200만원 → 150만원 5년 라이선스

(1Lic기준, VAT별도)



사랑에서 \_ 예수여섯 번째

정보의 개방성과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방향

코로나19를 겪으며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가 급변하는 정세 속에 긴장과 두려움, 자신감과 희망이 교차하는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의 개방성,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 의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학습하게 되었다.

장기집권이 가능한 나라, 일당 중심의 견제 세력이 없는 나라, 공포와 억압의 정치를 하는 나라 이들의 공통점은 불투명이다. 우리는 가까운 동북아의 이웃 나라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정당과 지도자가 장기집권에만 몰두할 때 국가의 정책 목표는 불명확하고 정보는 폐쇄적이고 과정은 불투명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려는 자도 없고 묻는 자도 없는 자발적 생동력을 잃어버린 이런 조직은 결코 건강할 수 없고 위기 속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는 위기 속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 국민이 스스로 어떤 자긍심을 갖는지 체험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스포츠의 결과로, 문화 예술계의 수상으로 자긍심을 느낀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지도자와 정책,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한 나라의 국격을 돌아보게 한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순탄한 과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불신과 흠집 내기, 집행과정에서 집행자의 불성실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거나, 지자체별로 다른 접근으로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참여와 비평 기능이 작동된 사례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여준 개인의 참여 경험이 만든 단합된 힘과 신뢰가 궁극적으로 투표로 이어졌고 과거의 선거에서 보여준 대안과 정책이 없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예측 통계분석을 통해 수립된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하기도 한다. 리더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결과를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누가 신뢰하며 따르겠는가? 그 과정에서 진실성과 투명성은 필수적이다. 최선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보고 듣고 물어서 정확한 정보를 보다 쉽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본질을 망각한 채 특정 집단과 결탁하여 기생하려는 자세는 건강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이자 매국적 행위이다. 각국의 언론들은 물론이고 국내 언론사들도 지향점이 모두 다르다. 언론사의 대표가 바뀐 것뿐인데 정보의 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는 올바른에 대한 의지, 다음 세대를 위한 고뇌, 대의를 위한 결단 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

이제 다시 지방자치단체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아서, 관광자원과 인구가 부족해서 성장이 더디고 지역이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걸까? 결국은 리더와 시민 간의 신뢰적 관계가 도시 생동력과 직관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성공한 도시는 목표를 향한 지향점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민족은 흥의 민족이다. 위기에 직면하면 하나가 되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며 역경을 곳곳이 헤쳐나갈 줄 아는 순수한 민족이다. 정치가 즐거운 지방자치단체, 내가 참여하여 함께 이루고픈 지방자치단체, 나도 참여하였다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지방자치단체, 이 도시의 시민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지길 우리는 바란다.

관심과 애정으로 묻고 칭찬하며 듣고 변화, 혁신하는 책임정치, 옳고 그름을 바르게 말하는 건강한 언론, 내 가정을 돌아보듯 깨어있는 시민,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욱더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갈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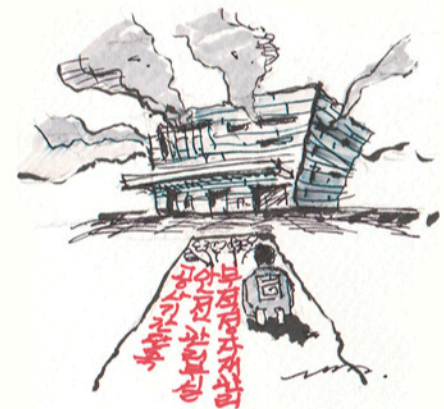
이천이십년 오월 육일, 마루로 육십칠  
자문위원 \_ 정명환 건축사(a2700@daum.net)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건축법」(법률 제 17223호)		
공포일자	2020.4.7.		
시행일자	2020.10.8.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주가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한정·축소(제25조제2항) (현행)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개정)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현행)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개정) 역량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li> <li>•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규정 신설(제25조제6항) (현행) 규정 없음 (개정)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사용승인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li> </ul>		
시행일자	2021.1.8.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 확대 신설(제77조의 15제2항) (현행) 규정 없음 (개정)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 수 확대</li> </ul>		
법령명	「건축물 관리법」(법률 제 17222호)		
공포일자	2020.4.7.	시행일자	2020.5.1.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해체 시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 확대(제30조1항) → 건축물 해체 시 신고대상 건축물 축소 (현행)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현행) 건축물의 높이가 20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현행)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하여 5개 층 이하인 건축물 (개정)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li> </ul>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편집위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해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양병범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500,000원  
 (주)대광판넬 350,000원  
 마이디자인 3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TOP PLUS

허만수 건축사 / 세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일곡로41번길 35, 1층  
Tel. 062-573-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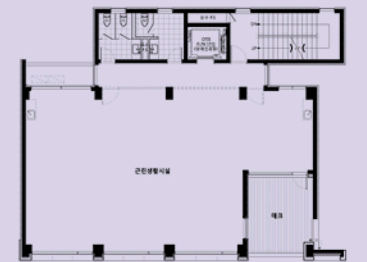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784 / 대지면적 : 439.40㎡ / 건축면적 : 253.23㎡ / 연면적 : 877.06㎡ / 건폐율 : 57.63% / 용적률 : 199.60%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라임스톤 소사레토, 스타카토

### 조형에서 형태로...

목직한 선형 볼륨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주변과도 확연히 대비된다. 간결하게 마감된 외형은 마치 조형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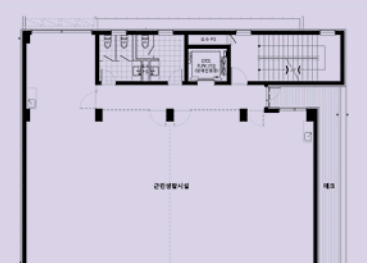
평면은 단순하다. 각층마다 외부 공간을 두어 형태적으로 우수하며, 볼륨감을 극대화한다. 입주자에게도 외부와 직접적인 소통으로 만족감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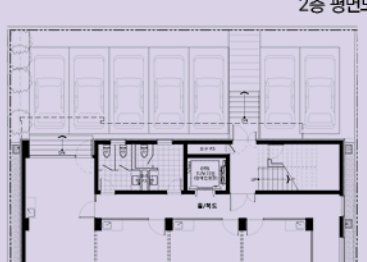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광주건축사회, '2020년 제33회 정기총회' 서면총회 의결

4월 20일 이사회에서 의안통과 의결, 신임 감사에 진수성 건축사 선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4월 20일 금수장 아리랑하우스에서 제4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제33회 정기총회' 서면총회의 성원과 부의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총 356명 대상 중 76.1%인 271명이 서면총회에 대해 개최동의하여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었으며, 전회 회의록 승인과 제1호 의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2회 의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대다수 회원들의 찬성동의로 원안 의결했다.

특히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안건에서 신임감사 선출 부분에 유효투표 237표 중 찬성 236표와 반대 1표로 진수성 건축사(주)도솔 건축사사무소를 선출 의결했다.

자세한 총회 결과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212266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강현구 회장은 이사회를 마치고 임기가 만료된 건축사회와 신탁 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으며 신탁 우수조합원에게도 표창패도 수여됐다.

다음은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임기 2년의 신임 임원 및 대의원 명단이다.



구분	건축사명 및 사무소명
이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입 - 7명</b></li> <li>장정수 -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li> <li>장동원 - 동원 건축사사무소</li> <li>유형두 - 건축사사무소 가원</li> <li>최진화 - 건축사사무소 현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종일 -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li> <li>윤형근 - 미지이엔지 건축사사무소</li> <li>김기일 - 다진 건축사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입 - 5명</b></li> <li>안길전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li> <li>조두상 - (주)프러스 건축사사무소</li> <li>신찬균 - 건축사사무소 우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정철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li> <li>강석훈 - 건축사사무소 선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입 - 4명</b></li> <li>장동원 - 동원 건축사사무소</li> <li>이혜란 - 나래 건축사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영문 - 이영 건축사사무소</li> <li>김종철 - 건축사사무소 영산아트</li> </ul>	

**광주건축사회, 2020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 주관으로 지난 5월 12일 화순군 무등산CC에서



2020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5월 12일 전남 화순군 무등산CC에서 개최됐다.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 최경락 회장 등 골프동호회 회원 및 참가신청 회원 6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가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회원 모두에게 그간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광주건축사회원들의 단합과 우의 증진을 이뤄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 우승은 연우 건축사사무소 박창수 건축사가 차지했다.

**제5대 편집인 취임사 / 임기 : 2020. 4. 11. ~**



**박종호 건축사**  
유민 건축사사무소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만 놓고 보면 다시 부활한 지역주의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문 사설은 당시의 동서로 분명하게 나뉜 색깔과 지금의 색깔은 엄연히 다른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역주의라니... 우리 건축계는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 건축단체들이 공통의 의견보다는 각각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으며, 그러는 와중에 건축계는 여러 분야에서 잠식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의 설계물량은 파레토법칙처럼 전체 설계사무소의 20%가 80%의 일을 수수하며, 80%의 설계사무소가 20%의 일을 수수하기 위해서 힘겨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지역의 건축계 또한 20%의 업역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저자이자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명왕성을 지나고 있던 보이저1호의 망원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 지구의 모습을 찍어보자고 해서 찍혀지게 된 사진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내용으로 사진이 게재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진이 시사한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건축문화사랑의 시작이 지역을 품고 안을 수 있는 건축계의 소통의 장, 문화로서의 건축을 지켜가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로운 5대 편집인으로서 다시 시작될 10년을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단순한 기고에서 벗어나 건축계 소식 등을 공유하고, 지역회원들 작품소개 등을 통해서 서로 함께하고 그래서 이 모든 역경과 힘들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껏 함께 건축문화사랑을 이끄셨던 역대 편집장님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모든 편집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광주건축사회, 서구청 불공정 입찰공고 사항 개선시켜**

전기, 통신, 소방 등 외주협력 설계업체를 지역제한한 내용 해제...

광주 서구청에서는 지난 4월 말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전기, 통신, 소방 등 외주협력 설계업체를 광주로 지역제한하였다.


이에 광주건축사회는 서구청에 변경 요청 및 민원제기를 통해 소수에 불과한 광주권 외주협력 설계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한 입찰공고로 수정공고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서구청에서는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지난 4월 29일 재공고 하였다.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광주광역시청에서 발주한 불공정 입찰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여 개선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는 향후에도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입찰공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개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회원동정**

- **퇴회**  
- 김상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공간
- **전입**  
-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310호  
- 임경희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310호
- **전출**  
- 유기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준
- **변경(소재지)**  
- 이남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인 / 광주 북구 하서로 421, 2층
- **결혼**  
- 김중필 건축사 / 필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5월 02일(토)
- **부고**  
- 이지섭 건축사 / 이지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4월 26일(일)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제4대 편집인 이임사 / 임기 : 2018. 4. 11. ~ 2020. 4. 10.**



**강동영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라움

건축문화사랑과 인연을 맺으면서 편집위원회 일을 처음 시작한 때를 2012년 봄으로 기억합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로서는 여러 편집위원님들과 신문의 구성과 내용을 논의하고 지역건축계의 동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 계속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경기 편집이나 독자마당 섭외부터 했던 일이 어느덧 편집의 총책임을 지는 편집인의 자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재미와 보람이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건축사회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문화사랑은 그동안 타지역 건축사회의 부러움을 사는 건축사 언론지로 자리 매김 해왔으며 작년에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 신문을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항상 저희 신문을 응원해주시는 이 지역 전·현 임 건축사회 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축문화사랑의 처음 시작을 열어주는 ‘시론’을 기고 해주시는 여러 논설위원님들, ‘사랑에서’를 맡아주시는 전임 편집인들과 ‘건축사 만평’으로 건축시류를 꼬집어 주시는 심상봉 건축사님, 매달 각 ‘지역 작품’과 ‘설계경기’에 자신의 작품을 기꺼이 제출해주시는 여러 건축사님들, ‘독자광장’에 자신의 글과 그림을 주시는 여러 독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건축문화사랑 편집인으로 박종호 전남 부편집인께서 저의 뒤를 잇게 됩니다. 좀더 활기 있는 내용과 지면 구성으로 새로운 건축문화사랑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신입 편집인께서 저보다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와 함께 해주신 편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회의 자료와 기획지면, 지역소식 등을 취합하고, 살림을 맡아 주시는 광승국 전담기자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남악1947

전인천 건축사 / 다르다 건축사사무소

전남 목포시 원형동로 25, 301호  
Tel. 061-285-7908



대지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947번지 / 대지면적 : 311.50㎡ / 건축면적 : 154.55㎡ / 연면적 : 239.96㎡ / 건폐율 : 49.61%  
용적률 : 77.03%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T30인조대리석, 탄화목, 징크



## 전남건축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위임총회로 개최

지난 4월 17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신임 감사에 강성민 건축사 선출 등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4월 17일 보성 다비치콘도 2층 일리홀에서 재적 회원 310명 중 출석 18명, 위임 215명 참석으로 2020년도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2019회계연도 결산

감사 보고가 진행되었고 부의안건 5개의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했다.

특히, 부회장 2인으로 확대하는 회칙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서(안)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도 원안 의결됐다.

이와 함께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은 감사에 광양지역 회원인 강성민 건축사(이노 건축사사무소)를 선출하였고, 이사 4인과 대의원 10인도 선출하여 의결했다. 다음은 이사 및 대의원 명단이다.

구분	건축사명 및 사무소명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임(유임) - 3명</li> <li>김 정 - 대진 건축사사무소</li> <li>추현호 - 건축사사무소 미래</li> <li>• 신임 - 3명</li> <li>한형민 - 예향 건축사사무소</li> <li>박미라 - GA 건축사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만호 - 한성 건축사사무소</li> <li>박종호 - 유민 건축사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임 - 1명</li> <li>강성민 - 이노 건축사사무소</li> </ul>	
대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임(유임) - 3명</li> <li>김선중 - 삼우 건축사사무소</li> <li>문성식 - AUD 건축사사무소</li> <li>• 신임 - 6명</li> <li>신재관 - (주)연희 건축사사무소</li> <li>배중수 - 한려 건축사사무소</li> <li>김 정 - 대진 건축사사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동만 - 대림 건축사사무소</li> <li>김재호 - 건축사사무소 휘람</li> <li>박부건 - 서현 건축사사무소</li> <li>김병원 - 상록 건축사사무소</li> </ul>

## 전라남도, '내 땅 공유지분' 찾기 홍보 나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5월 22일 종료 앞두고... 기한 내 신청해야

전라남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법을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등기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개별법을 저촉 사례로는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 간 이격거리, 건폐율, 용적률,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이 있다.

전라남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4월 기준까지 385건, 909필지를 신청받았으며, 352건, 844필지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완료해 토지이용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대상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 일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유지분 형태의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를 비롯해 건물과 토지의 매매 용이,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순천시, 도시재생 로컬크리에이터 '공공 워크숍' 개최

지난 4월 29일 청춘창고에서 '로컬 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례 및 지원 전략' 주제로



순천시는 지난 4월 29일 순천 청춘창고(역전길 34)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공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 창업자들과 함께 타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순천의 로컬 자원을 활용한 창업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워크숍은 '로컬 자원을 활용한 창업 사례 및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중호 센터장과 아트클러스터 별의별 고은설 대표를 초청해 진행됐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무자와 관계자 위주로 참여대상을 줄이고, 현장 내 마스크 착용·발열 체크·손 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위생관리 후 진행했다.

또한 워크숍을 마치고 도시재생 뉴딜 순천 역세권 일대 로컬 기반 창업 사례를 탐방하고, 도시재생 거점 공간 예정 부지를 방문해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순천시 도시재생 '공공 워크숍'은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뉴딜사업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공동체 간의 갈등관리', '로컬의 잠재적 가치와 희망' 등의 주제로 총 3회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시민들은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061-749-3660)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군 오룡산을 품은 남악1947 주택은 주변 지형의 영향으로 편안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곳으로 노부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하는 최적의 장소로 선택하였다. 건축주의 남편분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부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어서 건축 설계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계획하였다.

남악1947 주택은 이면도로에 접하여 개방감과 접근성은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지의 지형 레벨과 차폐 조경을 설치하여 실내 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부 건물 형태는 매스의 적극적인 돌출과 고급스런 마감재를 이용하여 역동적이며 세련미가 돋보이게 계획하였다.



### 광양시, 도시재생추진단 회의를 통해 공모 사업 구체화

지난 4월 17일, 광양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관련 부서 회의 개최



광양시는 지난 4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부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신규 공모를 준비 중에 있는 금호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과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유희부지 등에 지구단위개발방식의 지역활성화 사업이면서 인허가 절차 완화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금호동에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바깥 지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는 점 단위 인프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을 광영동 외곽부에 계획하고 있다.

광양시 도시재생추진단은 김명원 광양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26개 관련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2017년 9월부터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외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연계를 통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서 간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17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미터 이상 간격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부서 간 의견을 종합하고 회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검토할 계획이다.

### 전남 영광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총 주택 14,462호...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아

전남 영광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314호 및 공동주택 7,148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사전 열람 기간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4.65%가 상승했는데 이는 건축단가 및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현실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영광군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및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재조정·공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061-350-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여수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 주택지원사업 추진

지난 4월 13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가능, 340여 세대 선착순 지원

여수시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지원 금액은 설비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광 시설은 kW당 335천 원(3kW 최대 1,005천 원)을, 태양열 설비는 14㎡ 이하는 ㎡당 73천 원/㎡(최대 1,022천 원), 20㎡ 이하는 ㎡당 65천 원/㎡(최대 1,300천 원)를 지원한다.

340여 세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회원가입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13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 순천시, '2020년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

- 응모대상 : 2016년 이후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사용승인 된 순천시 소재 건축물
- 응모구분 : 주거와 비주거 / 우수작 1개소, 가작 2개소 선정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일간
- 접수방법 : 응모를 희망하는 설계자와 건축주는 순천시 건축과에 응모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심사용 패널 등 응모서류를 제출
- 문 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79)

###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염은선 건축사 / 시담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와순읍 진각로 175, 2층
  - 최수아 건축사 / 아름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 49
- **전입**
  - 유기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준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56-1, 102호
- **전출**
  -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임경희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변경(상호&소재지)**
  - 노기승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WITH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4, 203호
  - 정원석 건축사 / 연일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55-1
- **변경(소재지)**
  - 정집문 건축사 / 더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쌍봉로 68, 101호
- **결혼**
  - 윤순하 건축사 / 대하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04월 11일(토)
- **부고**
  - 한삼섭 건축사 / 한국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04월 11일(토)



**전북건축사회, 제54회 정기총회 지난 4월 16일 서면총회로 개최**

회관 소회의실에서... 신임 감사에 소태호 건축사 선출, 이사 및 대의원은 위임 선출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4월 16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에 따라 회원들이 안전 별로 서면투표한 집계결과에 의

해 임원 및 지역 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하여 의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도 수지결산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원안 승인하고, 현재 전북건축사협회 명의로 되어있는 전라북도건축사회관을 협회에서 매입을 추진키로 의결하였으며, 소태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태호건축)를 감사로 선출하고 이사 7명과 대의원 13명은 회장에게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선출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협회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최진호 건축사에게 대한건축사협회 공로상을, 전라북도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김유천·박현우·이태원 건축사에게는 전라북도지사 표창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강태원·김성규·김정태·손울희·홍영식 건축사에게는 전라북도교육감 표창장을 각각 수여하였다.

다음은 이번 총회에서 위임되어 선출된 이사와 대의원 명단이다.

구분	건축사명 및 사무소명	
이 사	• 유임 - 5명	
	박진만 - (유)장원종합 건축사사무소	서일석 - 건축사사무소 예담
	안홍준 - (유)샘 건축사사무소	이태원 - 예인 건축사사무소
	전병갑 -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 신임 - 2명	
김동범 - 동방 건축사사무소	배철용 - 환경그룹 건축사사무소 청	
대 의 원	• 유임 - 10명	
	이길환 - (주)길종합 건축사사무소 이엔지	김경태 - 엠.에스 건축사사무소
	김상수 - 한솔 건축사사무소	나경천 - 건축사사무소 세움
	서일석 - 건축사사무소 예담	안홍준 - (유)샘 건축사사무소
	이성엽 - 아림 건축사사무소	이태원 - 예인 건축사사무소
	장기중 - 지산 건축사사무소	전병갑 -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 신임 - 3명	
	김동범 - 동방 건축사사무소	김종용 - 건원 건축사사무소
	정주용 - 가림 건축사사무소	

**전북건축사회, 전북도청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성금' 기탁**

4월 20일, 송하진 도지사에게 도회 성금 1,000만 원과 길 건축 성금 1,004만 원 전달



전북건축사회와 (주)길종합 건축사사무소 이엔지(대표 이길환)는 지난 4월 20일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송하진 도지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1,000만 원, 1,004만 원을 전달하여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탰다.

전라북도는 전달된 성금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이길환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사용돼 가족이나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이겨내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미약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응원하며, 협회 회원들도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지역건축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성금' 기탁**

지난 4월 22일 완주군청 방문, 박성일 군수에 성금 300만 원 전달



완주지역건축사회(회장 홍영식)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지난 4월 22일 완주지역건축사회에서는 완주군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재난적 위기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완주군은 전달된 성금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완주군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홍영식 회장은 "코로나19 재난적 상황으로 가족이나 어려운 저소득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이겨내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작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공차**

장성호 건축사 / 장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71, 3층  
Tel. 063-237-0058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총정로 61-2 / 대지면적 : 137.00㎡ / 건축면적 : 81.63㎡ / 연면적 : 130.83㎡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일반철근조 / 주요 마감 : 유로징크패널, 24MM 복층유리



### 전주시, 빈집정보 담은 '빈집은행' 사이트 운영... 환경개선 '앞장'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빈집은행'에 활용 가능한 빈집 70호 등록

전주시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으로 악용돼왔던 빈집의 정보를 공유해서 거래의 활성화와 정비로 정주 환경을 개선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주거환경을 해쳐왔던 빈집의 정보를 공유해 거래할 수 있는 '빈집은행'을 시범 운영한다. 먼저 시는 빈집은행 운영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이트에 전국 최초로 빈집 70호를 등록했다.

이 사이트에는 빈집의 위치와 면적, 구조, 현황 사진, 소유자 의견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는 물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주변 생활복합시설과 민간업체의 정보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시는 시민들이 수요에 맞게 빈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 간 중개역할을 진행해 빈집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빈집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의 경우 '빈집은행'(https://gongga.lx.or.kr/portal/main.do?side\_cd=45110) 사이트나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빈집을 활용하길 원하는 시민은 '빈집은행'에서 확인한 빈집을 전주시 주거복지과(063-281-5249)에 전화해 안내받으면 된다.

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 보완한 뒤 오는 7월부터 '빈집은행'의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빈집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오는 9월까지 진행해 빈집 정보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빈집은행' 운영으로 체계적인 빈집관리는 물론 빈집 재생 등 수요에 맞는 활용을 지원해 정주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전주시, 오는 29일까지 총 3만 8,499호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전주시가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시는 완산구 1만 9,509호와 덕진구 1만 8,990호 등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만 8,499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된 주택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26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할 계획으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

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서 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주택특성조사 및 개별주택 공부자료를 정비했으며, 지난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했다.

### 남원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공동주택 대상, 금년에는 4억 8,200만 원의 예산 확보해 시행공고 후 신청받아 추진



남원시는 관내 20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이

용시설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된다.

남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총 194개 공동주택 단지에 33억 6,700만 원을 지원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행공고 후 공동주택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난 3월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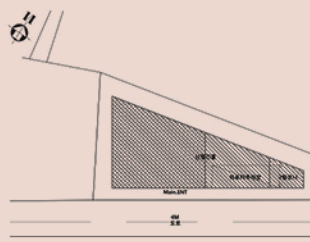
금년도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옥상 방수, 노후 배관 교체, 소방시설 보수, CCTV 및 LED 등기구 교체 등으로 8월 말 사업 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전북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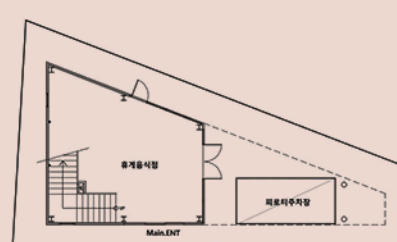
- **입회**  
- 김우철 건축사 / 예감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황학5길 5-7
- **변경(소재지)**  
- 배성기 건축사 / 기단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8, 4층  
- 안광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하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8
- **변경(상호&소재지)**  
- 권혁성 건축사 / 스퀘어업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74-1, 5층
- **결혼**  
- 추연철 건축사 / 추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5월 23일(토)
- **부고**  
- 김종수 건축사 / 이도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05월 03일(일)  
- 이종철 건축사 / 가나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5월 03일(일)  
- 조익환 건축사 / 성도 건축사사무소 / 장인상 - 5월 04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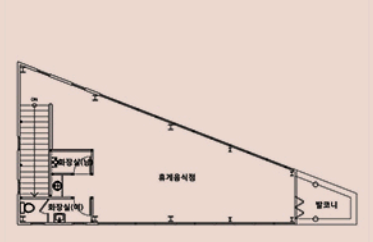
복잡한 도심 속 넓은 도로 한 칸,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 같은 그리 크지 않은 조그마한 이곳에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우람하게 보이게 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을 반기는 무언가를 넣어보자. 그리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아늑하고 행복하고 고귀한 그것을 바치자...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건축설계 제안공모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중심 공간으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 복합조성으로 낙후된 농촌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함.  
 심사위원 : 오세규, 김준택, 주용선, 유창균, 김용춘, 조익선, 정용재, 임경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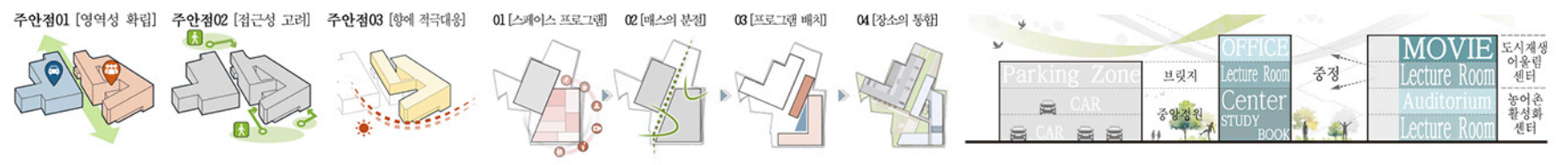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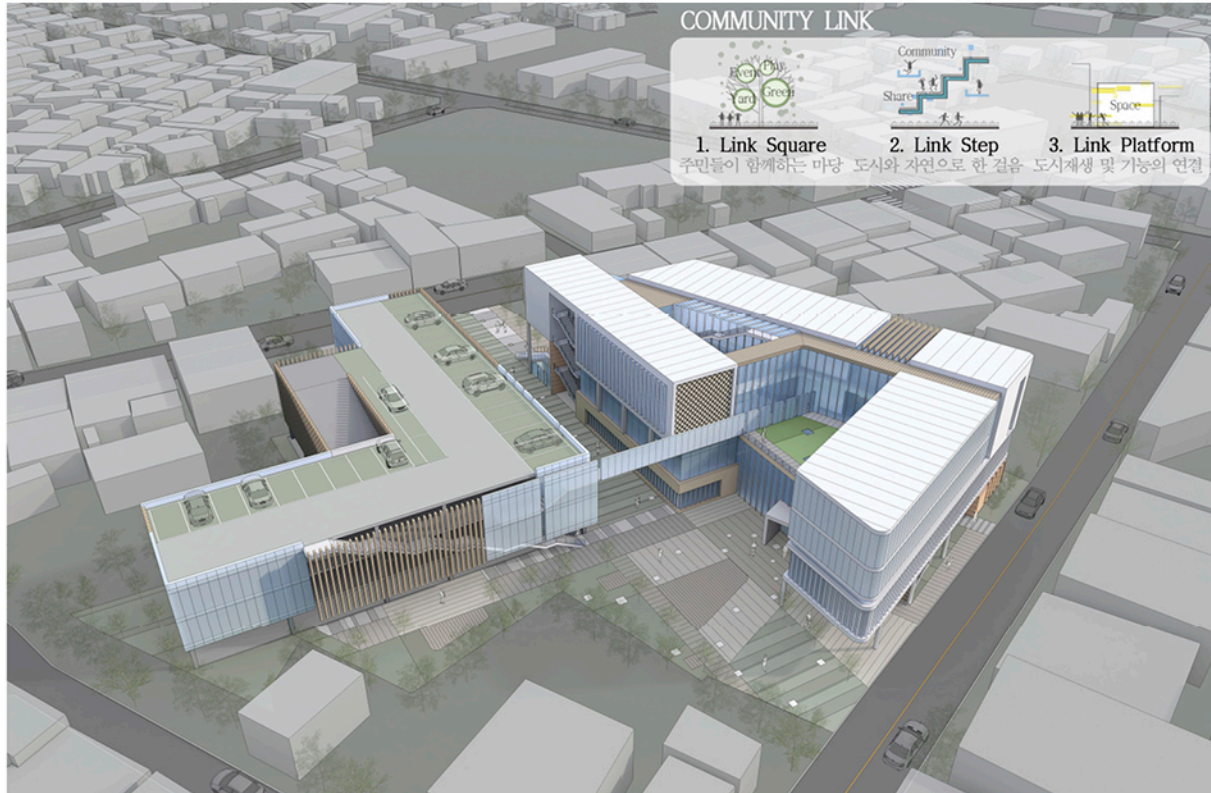
당선작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건축사사무소 가온  
 \* 자료 미제출

- 대지위치 :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92-9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518.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상대보호구역(강진동초등학교)

- 연면적 : 3,130.00㎡ (±10% 이내)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규 모 : 지상 3층 이하

## 당선작

이주경 건축사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 시작

준공건축물 부문 오는 6월 8일까지 참가 접수, 작품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지난 1992년 제정돼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작품 공모가 시작됐다.

올해 준공건축물 부문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 사이 국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을 응모할 수 있으며, 신진건축사 부문은 만 45세 이하(5월 31일 기준)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 중 본인 설계로 준공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6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작품접수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이다.

‘우리동네 - 여(與)이(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제로 한 계획건축물 부문의 온라인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8일까지이다. 사회적 현안을 건축인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건축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작품 가운데 수상작을 뽑는다.

올해에는 국내 한 지역 단위 혹은 마을을 새로이 규정하고 고민해 새로운 유형의 공공건축을 제안하면 된다.

작품접수는 오는 6월 3일부터 4일까지며, 패널 및 모형은 7월 6일까지이다.

한편,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출품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 발표한다.

준공건축물 부문 및 신진건축사 부문은 1차 사진접 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4점, 국무총리상 4점, 국토교통부장관상 19점, 대한건축사협회장과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로 74점을 시상한다. 계획건축물 부문은 국토교통부장관상 1점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 26점을 선정, 부상과 함께 시상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http://kaa.kira.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 올해 첫 ‘건축사자격시험’, 오는 6월 20일 실시한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시험장소 추가 확보로 인해 장소는 5월 중 공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3월 14일에 열기로 했던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이 6월 20일에 실시된다.

4월 19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시험방역 관리 안내서’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된다.

또한 2020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진 만큼 하반기에 시행될 제2회 시험은 제1회 자격시험과 일정의 중복을 최대한 피해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수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변경된 시험 일정에 대한 안내는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되며, 시험 일정과 방역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시험공간의 추가 확보 등으로 당초 예정되었던 시험장소 일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험장소 등은 5월 중에 공시될 예정이다.

## 광주전남건축가회, ‘제3회 광주건축대전’ 공모 진행

일반공모 ‘상상이상’ 주제로 6월 4일부터 등록 접수,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남승진)와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유우상)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회 광주건축대전이 개최된다.

전국단위 공모로 전공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전(총상금 1천300여만 원)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전(총상금 180여만 원) 등 2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일반공모전은 ‘상상이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아이디어 공모전은 도시-건축



공간을 다양하고 새롭게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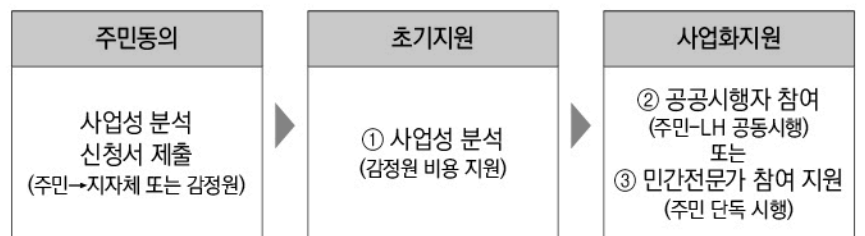
참가등록 및 접수 기간은 일반공모전의 경우 1차는 오는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2차는 아이디어공모전 접수 기간과 같이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다.

참가등록 방법은 홈페이지(<http://www.gwangju-project.kr/>)를 통해 신청하고 작품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연계행사로 오는 9월 16일부터 10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와 현대도시건축 기획전시전, 심사위원장이던 연세대학교 최문규 교수의 특강 등도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대전 홈페이지(<http://www.gwangju-project.kr/>)를 참고하기 바란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절차도〉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나,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들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 모집)할 수 있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90%, 연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용자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하여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또한, 공공참여로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과 적정 수준의 주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LH 참여 사업지 발굴을 위해 '20년 6월에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 시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LH에서는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 지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http://www.kab.c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또는 통합지원센터 (서울) (02-2187-4178), (대구) (053-663-8585)로 문의하기 바란다.



책 소개 \_ 이 들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천천히 재생

정석 저 / 메디치미디어 / 2019. 08. 30.

이 책은 크게 5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의 경험과 국내·외 도시재생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재생에 대해 전하고 있다.

‘도시는 혼자가 아니다’의 주제를 시작으로, 저자는 ‘도시재생은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재생도 한 사람의 인생처럼, 차근차근 천천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도시재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개발에서 재생으로’에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도시 흐름에 대해 설명하며 도시재생의 등장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도시를 바쁘게 만들어 내거나, 오래된 마을과 도시를 헐고 새로 짓는 개발 시대에서 작은 도시에 사람을 불러오는 도시재생까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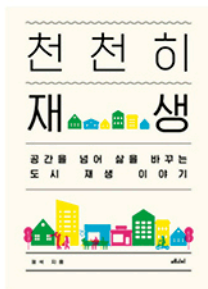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멸하지 않는 지혜’에서는 일본에서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재생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천천히 재생하는 사람들’에서 한국에서의 지방 재생 사례를 통해 병들어 있는 우리의 도시에 맞는 치료법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날의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원도심을 살리는 게 지방 재생의 출발점이라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닮은 도시’에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내가 생활하는 삶터부터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정부 조직 안에 국민행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부를 만들면 국민이 행복해지고, 삶의 현상이 행복해질 것이라 말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시를 바라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성공한 사례를 가져와 우리가 사는 곳에 적용하기보다는, 우리의 도시에 알맞은 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도시재생은 관광지 만들기가 아닌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 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운명은 공무원들이 아닌, 도시의 시민들에게 달려 있기에, 우리의 도시에 다시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려 한다. 도시재생을 시작하는 학생분들에게,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축가분들에게,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한 편의 시 \_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오월의 눈물

해마다 오월이면  
논마다 모내기 준비하는  
소들의 땀 흘리는 소리가  
머억 기억처럼 들려 온다

땅 기운 모락 모락 솟아 오르는  
자운영 붉게 핀 그 자리를  
앞서가는 황소의 재기가  
깊은 고랑을 일구어 가고

뒤집혀진 검은 흙 위로  
도랑에서 흘러 들어온 물은  
밭물의 스나미처럼 밀려온다

어미 뒤를 따라오는 새끼들처럼  
고랑을 따라 줄줄 들어오는  
점령군 같은 물줄기들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거부할 수 없는 넓은 마음으로  
포근히 받아주는 논두렁

서서히 밀려오는 물은  
갈아엮은 논 고랑을  
금새 풍성히 적셔 놓는다

찰랑 찰랑 넘치는 물결이  
겨우내 얼었던 땅속을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 놓는다



세상사는 느낌 \_ 이정민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나 가꾸기

4월에 식목일을 맞이해 처음으로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칙칙한 집안을 푸릇하게 바꿔보고자 몬스테라를 키우게 된 것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면 되는 기르기 쉬운 식물이지만 초등학교 때 반 친구들과 함께 길러보았던 텃밭 체험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물을 줘야 하는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별이 잘 들지 않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몬스테라를 찢어진 잎이 보고 싶어 베란다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들어오는 명당으로 옮겨주고,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놓는 등 정말 열심히 몬스테라에 온 관심을 쏟았다.

하루하루 줄기가 길어지고 말렸던 잎이 활짝 퍼지는 모습을 감상하면서 문득 내가 식물에게 주는 관심만큼 나를 살렸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4학년 이제 곧 졸업을 바라보며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돌보기보단 주어진 상황에 대해 나에게 압력을 가하고 건강을 뒷전으로 두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건강에 조금씩 적신호가 오고,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번아웃 증후군이 오게 되면서 내가 몬스테라를 키우는 것처럼 내게도 마음을 쓰고 건강한 삶을 선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필요할 때만 걷는 게 일상이던 나는 하루에 한 번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밖으로 나가 조깅을 하고, 매일 새벽 3시 너머 잠들던 내 생활 패턴을 돌리기 위해 일찍 잠드는 습관을 들이고, 인스턴트나 야식보다 균형 있는 식단을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 바뀌는 시간은 힘들고 낯선 일들이었지만 나를 챙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안 쓰던 근육들을 단련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과는 다른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다.

‘진정한 만족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온다’고 한다. 우리는 삶에서 소중한 존재를 곱씹을 때, ‘나’라는 존재를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내가 출연하는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자 감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출연하는 인생을 나만의 시나리오로 채워 나갈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잊고 있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씩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문의 | 1855-2240



준불연 DK보드 [www.dkboard.kr](http://www.dkboard.kr) 검색

화재 NO · 단열 YES

준불연가등급  
**DK** 보드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DK보드는 독일 BASF 네오폴(비드법2종)에 특수 난연코팅과 난연액도포를 통해 탄생한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4 W/m·k 이하  
· 친환경 수성

**DK** | 주대 광 판 널  
주디케이보드